

최근 국내 미니랩산업 현황과 업계동향 집중 점검

국내 자동컬러사진현상기(MINILAB SYSTEM : 미니랩) 시장이 최근 심각할 정도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90년부터 급속히 신장세를 보이던 국내 미니랩시장은 지금까지 수요가 상당히 충족, 최근에는 경영수지 악화로 도산은 물론 사업을 포기하는 기업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보에서는 국내 미니랩 제조 및 판매업체들의 최근 동향과 관련업계의 문제점을 점검해 보았다.

아울러 올해 국내 미니랩시장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편집자 주-

취재 : 언정희 기자

최근 국내 미니랩산업 현황

- 내수시장포화로 최근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국내 미니랩시장의 올 마켓볼륨은 5백-5백50대 규모 -

최근 국내외사진시장이 '일대 변혁기를 맞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존의 고정관념을 뒤흔드는 사진 관련 신상품들이 개발, 속속 출시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중 APS제품(APS카메라, 필름, 미니랩 등)과 디지털 관련장비들이 바로 실용화로 연결되고 있어 '광학제품이 멀티미디어 시대의 핵심장치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짐작케 하고 있다.

APS제품과 디지털 관련장비 등이 PMA '96과 Photo-kina '97 전시회에 첫선을 보인 이후, 세계사진관련 종사자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이들 신

제품의 신규시장 창출의 성공 여부에 대해 명암이 엇갈리는 다양한 견해와 주장을 제시한 바 있다.

정체된 기존 사진시장에서 이들 신제품이 소비자들의 새로운 Needs를 창출하고 또한 흡인력있게 소비자들 속으로 파고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더 두고볼 일이지만, 선진기술을 뒤따라가기에 급급한 국내 미니랩 관련메이커들은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부담과 함께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 미니랩시장 상황으로 인해 최근 다양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9년 이전까지만해도

국내에서는 수입품과 (주)에이원인터 C.K산업 및 삼원사진기기(주) 등의 중소기업에서 독자모델의 미니랩을 개발·보급하다 '90년 이후 삼성항공산업(주), 한국후지필름(주), 새한요코야마(주) 및 두산상사(주) 등에서 국내 미니랩시장에 참여, 치열한 판매경쟁을 벌임으로써 국내 미니랩시장은 급속한 성장을 이룩했다.

연도별 국내 미니랩 생산규모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에이원인터 C.K산업 및 삼원사진기기 등의 국내중소기업이 미니랩을 개발 보급하기 시작한 지난 '89년, 국내 미니

랩 생산규모는 81대, '90년에는 96대, '91년 7백59대, 그리고 '92년과 '93년에는 각각 8백~9백대가 공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94년에는 6백50대, '95년에는 6백대, '96년에는 5백대 규모의 미니랩이 내수시장에 공급되었으며, 올해 역시 전년 수준인 5백~6백대 규모의 미니랩이 판매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상의 통계자료를 감안해 볼 때, '91년을 기점으로 '93년까지는 미니랩 공급이 급증하다 '94년부터는 공급량이 매년 약 1백 여대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95년을 기점으로 국내 미니랩시장의 포화현상이 두드러짐에 따라 '95년에는 새한요코야마(주)가 도산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삼성항공산업(주)가 미니랩사업을 포기했다.

ML-3130과 Q-1300을 국산화, 내수는 물론 수출분야에도 주력해오던 삼성이 지난해 미니랩사업을 포기한데는 국내 미니랩시장의 포화로 인한 내수시장의 정체현상과 제조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국제경쟁력 약화로 인해 적자경영이 누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따라 '삼성항공은 이미 판매한 자사제품에 대한 애프터서비스 등의 잔여업무 처리

를 위한 관련팀을 존속시켜 향후 지속적으로 고객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고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현재 국내 미니랩 제조 및 판매업체로는 두산상사(주), (주)에이원인터 C.K산업, 삼원사진기기(주), 한국후지필름(주)가 있으며 한국코닥(주)와 현대교역(주) 그리고 (주)한서에서는 두산상사에서 제조한 두산노리쯔 미니랩의 국내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이밖에도 (주)세동물산, (주)아그파코리아, 한보물산(주)를 포함한 국내 10~15개의 무역업체들이 미니랩 및 사진현상기를 수입, 국내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들이 현재 연평균 국내시장에 보급하고 있는 미니랩은 5백50대에서 6백대 규모인데, 최근 들어서는 미니랩 구매층이 컬러모니터 및 스캐너가 장착된 완전자동의 미니랩을 신규로 구입하거나 또는 중고미니랩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미니랩 보급대수는 약 8천 여대 정도이며, 이는 인구 7~8천명꼴로 1대의 미니랩이 보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비해 일본의 경우는 약 2만 여대의 미니랩이 보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국내미니랩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미니랩 보급률

이 아직 일본에 비해 적어 앞으로 그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일각에서는 '최근 적자경영으로 문을 닫는 현상소가 늘어나고 있고 또한 신규 수요보다는 대체수요가 그리고 신제품 보다는 중고미니랩을 찾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어 미니랩 제조 및 판매업체들은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미니랩 제조 및 판매업체들은 신규수요 및 판로확대를 위해 완전자동의 미니랩을 보급, 현상소의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필름 및 감재판매를 겸하고 있는 기업체들은 미니랩을 판매하면서 현상소의 실내 인테리어나 감재공급시 다양한 메리트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투자마인드의 위축과 도산하는 사진현상소의 증가로 중고미니랩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에는 포토플러스, 신영상사, 한국종합QS를 비롯한 10 여개 정도의 중고미니랩 판매상이 있다. 이들 업체들이 취급하고 있는 중고미니랩은 사진현상소에서 인건비 절감을 위해 자동화 기종으로 교체하는 것이거나 또는 용량확대를 위해 노후기종을 신제품으로

교체한 것이 대부분으로 현재 국내 중고 미니랩시장에서는 ML3130, QSS-1201, 1001 등 주로 반자동기종이 인기리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고미니랩의 주 수요처는 스튜디오 운영자들인데, 이는 현상소쪽으로 발길을 돌리는 기존 고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투자로 중고미니랩을 설치, 사진촬영은 물론 현상인화의 콕서비스까지 겸업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

고 있다.

한편 국내 미니랩시장에서 유통되는 미니랩의 총 유통량 중 중고미니랩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5~10% 이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95년에는 총 거래량 중 중고미니랩이 차지한 비율이 20~25%, '96년에는 30%였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또한 올 상반기 중에는 총거래량중 약 50% 가량이 중고미니랩이 차지한 것으로 중고미니랩 전

문취급업체인 포토플러스의 한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포토플러스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구입한지 3년된 미니랩은 신상품의 50% 정도를 지불하면 구입이 가능한데, 중고미니랩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미니랩의 구동부위나 전자적인 부분의 이상유무를 사전에 점검하되, 전문가를 대동해서 기계의 성능을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

국내 주요 미니랩 제조 및 판매업체 동향

- 국내 미니랩 업계, 정체현상 보이는 내수시장에서 APS대응기종과 디지털장비 공급 등 아이템 다각화를 통한 시장변화에 적극 대응 -

두산상사(주)

두산상사(주)는 지난 '90년부터 일본 노리쯔브랜드의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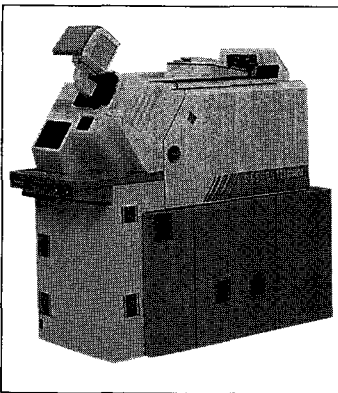
니랩을 국산화하기 시작, 지금까지 QSS-1201, 1501, 613, 2211, 2201을 국내시장에 공

급해 왔다.

지난 '91년에는 QSS-1201을, '93년에는 QSS-1501, '95

QSS-2211의 주요 사양

구 분	내 용
노광방식	3원색(Y.M.C) 시간변화 방식
광원	할로겐 램프 완전 산광 방식(36V 400W)
사용렌즈	줌 렌즈(110~135) 고정렌즈(바리포칼 렌즈)
네가 사이즈	110, 126, 135(F/H/P), 6×4.5 6×6, 6×7, 6×8, 6×9
네가 마스크	135 오토 네가 마스크
프린터 사이즈	처리가능 페이퍼 폭(mm) 82.5, 89, 102, 127, 152, 165, 178, 203, 210, 216, 이송길이 82~305mm, 전용의 페이퍼 마스크를 사용하면 25.4~81.9mm까지의 프린트도 가능
페이퍼 공급	인너 마가진 방식(페이퍼 길이 180m Max)
덴시타미터기	-15~+15키(스캐너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8~+9가 됨)
본체크기	(W)700mm×(L)1775mm×(H)1774mm
전원용량	220V, 단상 2선식(32A)
무게	475kg(프로세서)+120kg(약품)=595kg(토탈)



▲ 두산상사(주)에서 제조하고 한국코닥(주), 현대교역(주), (주)한서에서 국내 판매하고 있는 두산노리쯔미니랩, QSS-2211

년에는 QSS-613 그리고 '96년에는 QSS-2211과 2201을 각각 국산화, 출시한 두산상사의 미니랩은 현재 한국코닥(주), 현대교역(주), (주)한서에서 국내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두산상사에서 새로이 개발 출시한 QSS-2211은 지난 '93년에 발매한 QSS-1501의 대체모델이며, 이는 또한 APS대응기종으로 올해 두산의 주력모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두산은 올해 QSS-2211의 보급에 주력, 전년대비 매출액이 20~30% 신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두산에서는 QSS-2211의 후속모델인 QSS-2301의 개발을 검토중인데, 이는 QSS-2211에 디지털 기능이 첨가된 것으로 사진약 물인화가 가능해 현상가격을 낮추면서도 화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징을 지닌 기종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아그파코리아

아그파코리아(주)는 그동안 필름, 현상용액, 현상기기 및 인화지 등 사진 관련 제품을 국내 보급해오다 지난 '96년부터 토탈 필름스캐닝시스템인 '아그파 MSC101'의 국내 보급을 시작, 현재는 MSC101 이외에도 MSC 100과 200 모델을 추가,

MSC 200의 사양

구 분	내 용
작업 극대화를 통한 속력	시간당 1천2백매 인화(3'×5", 135필름 24장자리 기준)
시간절약에 도움이 되는 편리함	- 모든 프린트사이즈(최대 8"×12")를 Sorter로 분류가능 - 135사이즈의 필름 Feeder, 자동출열장치 그리고 2개의 인화카세트 장치로 인해 또한 4가지 다른 사이즈의 프린트가 버튼 하나로 가능하며 이러한 장치들로 시간절약 및 업무의 편리
전력 및 약품의 소모량 절약	- 인화현상기에 탑재된 약품탱크는 일체형 보충시스템의 필요조건에 맞도록 cascade방식(분리형탱크나 역순환 보충되는) 구조로 놓여 있다. - 입체적 탱크구조 및 역순환 보충되는 안정의 3개 모액탱크 구조의 결합으로 보충원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

국내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아그파코리아에서 국내 판매하고 있는 'MSC 101'은 최소의 공간과 신속한 프린트서비스를 요하는 현상소에 적합한 기종으로 작업완성도는 필름에서 프린트까지 전자동으로 시간당 필름 25롤을 그리고 네가티브에서 프린트까지는 시간당 7백50매의 처리가 가능하다.

지난 '96년 비교적 후발로 국내 미니랩시장에 참여한 아그파코리아는 지난해 MSC

101을 24대 정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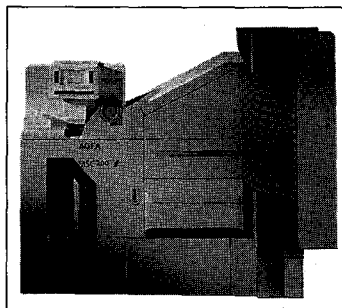
또한 지난 3월부터 'MSC 200'의 국내 판매를 시작한 아그파코리아는 올해 40대의 MSC 200 공급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아그파코리아가 올해 새로이 국내시장에 출시한 'MSC 200'은 대용량의 버전으로 시간당 1천2백매(135필름, 24장, 3'×5"기준)정도의 인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합성프린트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아그파코리아는 올해 MSC 100과 101을 중심으로 80대 규모의 미니랩을 국내시장에 공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에이원인터 C.K산업

지난 '89년, 중소기업으로서



▲ (주)아그파코리아가 국내 공급하고 있는 미니랩, MSC 200

는 처음으로 미니랩으로 국산화
 화를 시도한 (주)에이원인터
 C.K산업은 Z-777의 국산화를
 필두로 Z-777 II, α-812,828
 의 자체 개발을 통한 내수공급
 은 물론 수출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내수시장의 포화로 공
 급능력에 한계를 느낀 (주)에
 이원인터 C.K산업은 대신 해
 외시장 진출을 강력히 모색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지난해 베트남에 지사를 설립,
 Z-777 및 α시리즈의 수출을
 하고 있는 (주)에이원인터
 C.K산업은 '올 7월경에는 브
 라질과 중국에 지사를 설립할
 계획인 것'으로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또한 현재 내수시장에서 단
 종된 Z-777을 중심으로 동남
 아시아와 중남미지역 수출에
 주력하고 있는 (주) 에이원인
 터 C.K산업은 '올해 내수시장
 과 선진지역에는 α시리즈 공급
 에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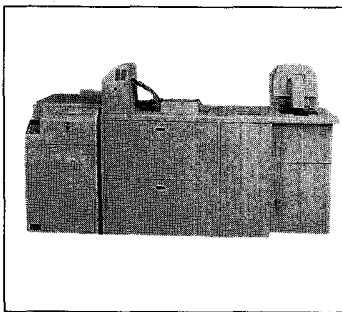
한편, 80년대 후반과 90년

대 초반에 비해 최근 내수시장
 에서 매출실적이 저조한 (주)
 에이원인터 C.K산업은 '올해
 는 α시리즈 판매에 주력, 월

15대 이상의 매출 신장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주)에이원인터 C.K산
 업은 자사제품은 물론 타사제

α-812 사양

구 분	내 용
노출방식	Y.M.C CUT-FILTER에 의한 자동 조절
광조절기능	STEPPING MOTOR에 의한 자동 조절(Dead Heating)
램프	마이크로 컴퓨터에 의한 배광 램프 36V 400W
네가티브크기	35F, 135H, 126, 110, 120 High Vision 및 파노라마, 135트 리밍(수송이송) 자동 캐리어는 135F/H(DX-CODE사용) 모든 네가티브 캐리어는 길이와 폭의 연결신호를 갖음.
네가티브이송	수동 필름 이송 및 자동 캐리어
인화렌즈	ZOOM LENS(주문사양) 110네가티브-89×127mm~127×178mm 인화(3½"×5"~5"×7") 135네가티브-89 127mm~152 216mm 인화(3½"×5"~6"×8½") 고정 초점 거리렌즈(48mm) : 135F네가티브 -210×305mm인화(8½"×12")
인화지폭	89mm(3½")에서 210mm(8")
인화지공급크기	55mm(2½")에서 308mm(12")
인화지마가진	폭조정 가변식 89mm(3½")에서 210mm(8¼") 길이 180mm(575ft)
인화지장진	수동 장진, 수동 되감기(Rewind)
채널수	99개 채널
LCD자막	80 캐릭터(40도트+2줄)
자동색조정	4색 요소 (CF)조정 : L1, L2, H1, H2 3네가티브조건(NC)조정 : NC1, NC2, NC3
수동색조정	-9에서 +10단계(표준=10%조정입력은 5%에서 50%)
스로프조정	각 채널에 언더와 오버 독립 조절
스캐너	자동 스캐닝 시스템(주문사양)
링어라운드	3단계 컴퓨터 자동 링어라운드 조절
컷트분류표시	천공 표시 형태
인화키운터	프로그램 형태(영구적 형식)
인화지이송	롤러 전송방식
이송속도	990mm/분
최소인화길이	550mm
인화지폭	89mm(3½")에서 210mm(8¼")가변식
약품	RA-4NP또는 동등액
예약시간	프로그램 숫자 타이머(7일 이내 메모리 가능)
약품보충	자동 보충 형식(프로그램제어)



▲ (주) 에이원인터 C.K산업이 국산화, 최근 국내
 공급은 물론 수출하고 있는 미니랩, α-812.

α-812 사양

구 분	내 용		
인화처리용량	(750매/시간E)		
	인화지	인화크기	매/시간
	89mm(3½")	89×127mm(3½"×5")	470
		89×254mm(3½"×10") 파노라마	230
	102mm(4")	102×152mm(4"×6")	390
	127mm(5")	127×89mm(5"×3½")	700
		127×178mm(5"×7")	330
	152mm(6")	152×102mm(6"×4")	580
		152×216mm(6"×8½")	275
	203mm(8")	203×254mm(8"×10")	230
203×305mm(8"×12")		195	
210mm(8¼")	210×305mm(8¼"×12")	195	
보충TANK	3탱크 12 l /개		
페액TANK	2탱크 12 l /개		
크기(단위mm)	가로 1,500m/m · 가로 600m/m · 높이 870m/m		
중량	390kg		
사용전원	AC200V-240V 단상 50/60Hz		
사용전력	4KVA(정상 사용전력 2KVA)		

품의 중고미니랩까지도 고가로 보상판매를 하고 있음은 물론 현, 1년으로 되어있는 무상서비스기간을 1.5년으로 늘려 애프터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주)에이윈인터 C.K산업은 이태리, 프랑스 등 선진국들로부터 대형현상기와 함께 디지털합성 및 컴퓨터 즉석촬영기기 등을 수입, 국내판매를 하고 있다.

현재, (주)에이윈인터 C.K산업이 국내 수입하고 있는 사진현상기는 이태리 산마르코의 Personal Pro(HS312)와 Personal Studio(Docsy51)을

그리고 프랑스 SPIE사로부터는 컴퓨터 즉석촬영 및 합성기기를 수입, 국내 벤치마켓을 이들 수입기자재로 커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코닥(주)

두산상사에서 제작한 두산노리쯔현상인화기의 국내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코닥(주)는 QSS-1201, 2211, 2201을 주력모델로 지난해 1백대 가량의 미니랩을 국내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코닥은 '97년 현재, 1천 8백70개나 되는 코닥 익스프

레스(Kodak Express)를 중심으로 미니랩 보급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코닥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전체 코닥익스프레스의 60~70%나 되는 점포가 두산에서 제조한 미니랩을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 기존의 노후기종을 신제품으로 교체하는 점포에서는 대부분 QSS-2211을 선호하고 있는데, 이는 고성능의 스캐너와 컬러모니터가 장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APS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QSS-2211과 동시기에 출시된 QSS-2201은 2211에 비해 가격이 7백만원 정도가 싸지만 흑백모니터에 APS 대응이 않되기 때문에 노후기종을 교체하려는 소비자들은 대부분이 QSS-2201보다는 2211을 더 선호하고 있다'고 한국코닥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따라 QSS-2211의 경우, 대기수요가 발생할 정도로 출시 이후 지금까지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어 올해 한국코닥에서는 1백50대의 미니랩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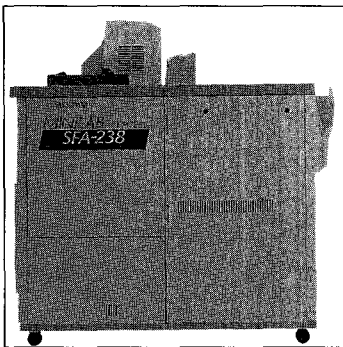
한편, 한국코닥에서는 '현재 서울, 경기지역을 포함한 30여개의 현상소에 APS 사진현상에 필요한 APS 키트를 이미 장착했는데, 앞으로는 APS제품 사용자들의 편리성을 도모

하기 위해 기존 코닥익스프레스에 APS키트 장착을 적극 유도, 올 연말까지 2백 여대의 키트 장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이밖에도 한국코닥에서는 코닥익스프레스를 포함한 소형 현상소의 경영정상화와 APS 제품의 현상인화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1천6백만원(VAT 별도)하는 APS 키트를 현재 1천4백만원에 보급하고 있으며 또한 소비자들로 하여금 사진 현상사이즈를 3"×5"에서 4"×6"으로 확대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밝혔다.

한국후지필름(주)

한국후지필름(주)는 지난 4월, 미니랩 신제품, '후지 Super FA-238'을 출시, 잠시 주춤하는 국내미니랩시장에 불을 당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한국후지필름(주)가 최근 새로이 출시한 미니랩 SFA-238

한글컬러모니터로 초보자도 손쉽게 작동할 수 있으며 3"×5"에서 8"×12"까지 다양한 사이즈의 필름을 확대프린트할 수 있는 후지 Super FA-238은 차세대 사진기술로 부각되고 있는 APS서비스 가능기종(APS 키트는 별매)으로 한국후지필름은 '올해 이 제품을 포함한 미니랩의 국내 공급량을 2백대 정도로 계획하고 있다'고 이 회사의 박기형 부장은

밝혔다.

또한 '소프트웨어를 한글로 교체, 한글컬러모니터로 초보자도 손쉽게 작동 및 사진에 컬러보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1년여의 개발기간과 상당한 자금을 투자했다'는 한국후지필름의 박기형 부장은 '후지 Super FA-238이야말로 진정한 한국형화된 미니랩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FA-COMPACT

후지 Super FA-238 사양

구 분	내 용
8인치사진인화 가능	- 135, 110, 126, 120, 220 필름을 현상할 수 있으며 3"×5", 4"×6", 5"×7", 6"×8" 크기의 사진은 물론 8"×10", 8"×12", 파노라마까지는 다양하게 인화가 가능
컴팩트한 디자인	- 3평 정도의 작은 공간으로도 충분히 설치 가능
V-ACCS 컬러스캐너와 한글 컬러모니터 채용	- 사진을 인화하기 전에 9인치 CRT 컬러모니터를 통해 고성능 컬러스캐너 V-ACCS로 자동 보정된 네가티브 화상을 포지티브 상태로 확인할 수 없어 실수 없이 아름다운 사진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컴퓨터로 작동되는 모든 사진 인화처리 메시지명령이 컬러모니터상에 한글로 표시되어 작업이 편리하다.
트리밍 사진 인화	- 사진의 원하는 부분을 트리밍하여 확대할 수 있어 새로운 사진을 쉽게 만들 수 있다.
범용채널방식	- 범용채널방식은 단 하나의 채널만으로 거의 모든 필름을 채널 변경없이 프린트할 수 있다.
다양한 사진 서비스 제공	- 3"×5", 4"×6", 5"×7", 6"×8", 8"×10", 8"×12", 파노라마 사이즈인화 뿐만 아니라 밀착인화, 트리밍 표시부분인화, 연하장, 여권, 증명사진인화 등 다양한 사진 서비스 제공
고성능 줌 렌즈 장착	- 사진인화 사이즈가 변경될 때마다 렌즈는 교환할 필요없이 기본적으로 장착된 줌렌즈로 최대 8"×12"사이즈까지 자동으로 조절하여 프린트할 수 있다.
오토네가 캐리어 NC 135J	- 오토네가 캐리어 NC 135J는 136네가 필름을 자동장착했으며,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파노라마 및 모든 사이즈의 사진을 네가 마스크 교환없이 프린트할 수 있다. 특히 DX코드와 프레임 넘버 바코드 판독기가 장착된 NC 135J는 V-ACCS와 결합되어, 고품질의 사진을 자유롭게 프린트할 수 있다.

Ⅱ와 FA-7000Ⅱ를 중심으로 국내 미니랩시장에서 판매부진을 겪었던 한국후지필름은 '지난해 연초에 세웠던 1백50대의 판매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반적인 경기불황요인과 함께 미니랩공급의 포화 그리고 APS 및 디지털제품의 출시로 기존기종에 대한 잠재구매층이 대기수요로 돌아섰기 때문인 것'으로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밝혔다.

또한 지난해 국내미니랩시장에서 별로 재미를 보지 못한 한국후지필름은 대신 일본 및 미주지역으로 필름현상기 FP-562를 6백90여대 수출, 국내 시장에서의 판매부진을 수출을 통해 만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해 한국후지필름은 'Super FA-238과 FA-8000을 중심으로 내수시장을 주도하고 기존에 판매하던 FA7000은 이미 단종을 시켰으며, 또한 FA-COMPACTⅡ는 현재 생산된 물량이 소진되면 더 이상 생산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아울러 내수시장에서의 판매확대를 위해 한국후지필름에서는 중고미니랩을 신제품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는 기존에 사용하던 중고기계 값을 뺀 신제품의 차입금액만을 지불하도록 하는 일종의 보상

판매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후지필름은 '올해 수출의 경우, 국제적인 불경기로 전년수준에 못미치는 5백대 규모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현대교역(주)

현대교역(주)에서는 한국코닥과 마찬가지로 두산상사에서 제조한 QSS-2211, 2201, 1201을 중심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 판매량이 계속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4년에 1백10대, '95년에 70대 그리고 지난해 48대의 두산노리쓰현상기를 국내시장에 공급한 바 있는 현대교역은 올해는 QSS-2211과 1201을 주력기종으로 약 60여대의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대교역에서는 최근 미니랩의 판매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전원 간부사원으로 구성된 '개발전략팀'을 구성, 미니랩의 설치가능성이 있는 스튜디오를 방문해 판매상담을 적극적으로 벌이며 이와 함께 디지털사업팀을 발족, 아 이템을 다각화시킴으로써 전체적인 매출신장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세동물산

세동물산은 지난 '90년부터 스위스의 GRETAG사로부터 사진 현상기, △MASTER LAB+, △MASTER PRO, △MASTER PLUS 712, △MASTER FLEX, 및 △MASTER LAB Digital장비를 수입, 국내 판매를 하고 있다.

이상의 여러 기종중 현재, 세동물산에서 주력하고 있는 기종은 MASTER LAB+로 이는 특수광학장치로 정확한 색상관리, TOP OFF SYSTEM 장착으로 약품의 산화농축 방지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안정된 무인스캐너를 보장해주는 기종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MASTER LAB+는 작은 공간에서 부부가 함께 사진현상소를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적합한 기종으로, 전기는 물론 인화지 절약형으로 타 기종에 비해 연간 5백만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 회사의 이세훈 사장은 전했다.

한편, 세동물산에서는 APS사 진현상 대응기종으로 MASTER LAB+에 1천 5백만원 하는 APS 키트를 내년부터 본격 장착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중에 있다.

이밖에도 세동물산에서는 내년 초엔 본사에 중앙제어시

MASTER LAB*의 사양

포토플러스

FILM현상기	
1. 현상액	1. C-41 RANP 또는 동일
2. 필름 진행방식	2. 소트리다, 단일랙
3. 필름 사이즈	3. 110, 126, 135, 120, 2"×3"
4. 현상시간	4. 8분40초(건조 포함)
5. 현상능력	5. 21Rolls(135/24Exp)
6. 보충방식	6. 통합된 TANK로 자동보충
7. 충전 BATTERY	7. 정전시 전력공급하여 탱크내 FILM 정상처리
PRINTER/PAPER현상기	
1. 현상액	1. RA-4 NP 또는 동일
2. FILM 사이즈	2. 110, 135, 126, 120, 2"×3" 파노라마
3. PAPER 이송방식	3. 개별 사진이송
4. 프린트 사이즈	4. 3"×5"~8"×12"
5. 프린트 인쇄시간	5. 4분30초(건조 포함)
6. 인쇄능력 : (3.5"×5")	6. 550
(4"×6")	470
(5"×7")	170
(8"×10")	130
(8"×12")	110
기타	
1. 소요전원	1. 200V~240V 50/60Hz
2. 소비전력	2. 2.3kW
3. 중량	3. 320kg
4. 외형치수	4. 780(W)×1226(L)×1700(H)
5. 설치면적	5. 0.96m ² (0.29평)
옵션	
	1. 8" MAGAZINE
	2. 텐시터메터
	3. 그리팅 카드
	4. 120mm SETS
	5. 백프린터
	6. FILM 클리너
	7. 4"×6" MAGAZINE
	8. DIGITAL 영상 출력
	9. APS FILM PRIN KIT
	10. 모뎀KIT(통신A/S)

중고미리랩 전문 취급업체인 포토플러스는 올 봄에 설립, 기존 중고미리랩 판매상들과의 차별화선언을 하고 나섰다.

최근 경기불황과 도산하는 사진현상소의 급증 그리고 현상소에서의 인건비 절감을 위해 기존 수동 및 반자동기종을 컬러모니터와 스캐너가 장착된 완전자동기종으로 교체하는 현상이 확대됨으로 인해 그 어느때보다도 중고미리랩의 시중유통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중고기계를 단순 증개판매차원이 아닌 'OVER HAUL(완전 분해 수리작업) 과정을 거쳐 이전설치 및 오퍼레이팅교육과 함께 사후 관리에 대해서도 신제품 못지않게 고객관리를 해나겠다'는 것이 포토플러스가 주창하고 나선 기존 중고판매상들과의 차별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일본에 비해 5년이 뒤진 이 제서야 국내에서도 중고미리랩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강조하는 포토플러스의 박신규 실장은 '앞으로 우리회사에서는 중고미리랩의 국내판매는 물론 중남미, 러시아, 아프리카 등지의 해외시장에도 수출을 적극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스템을 갖춰 고객관리에 더욱 국내 발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안전을 기하며 기존인화지로 디지털사진 처리가 가능한 'MASTER FLEX'를 새로이

한보물산(주)

한보물산(주)에서는 무인컬러현상기, 완전자동확대기, 대형인화현상기, 필름현상기 등을 수입, 국내판매를 하고 있다.

현재, 한보에서는 HI-Q780과 MICRO400, PROII을 수입 판매하고 있는데, HI-Q780은 KISS사로부터 그리고 PROII은 이태리의 AFI사로부터 OEM공급을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I-Q780은 무인컬러현상기로 증명사진에서 8"×10"사진까지 인화할 수 있으며, 또한

120필름으로 스튜디오사진을 제작할 수 있는 프로기능을 겸비한 제품이다.

또한 MICRO 400은 용량이 적고 기능을 단순화한 미니랩으로 팬시문구점이나 24시간 편의점 등에서 구색맞추기로 사진 현상인화물량을 처리하기에 적합한 기종이며, PROII은 전문가용으로 웨딩사진이나 스튜디오촬영용 사진의 현상인화에 적합한 기종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보물산은 '올해 말부터 '97년형 미니랩에 APS키트와 모니터 장착을 옵션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

다'고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밝혔다.

(주)한서

일본 노리쯔의 국내독점 대리점으로 노리쯔미니랩을 제일 먼저 국내 보급한 바 있는 (주)한서의 경우는 미니랩이 수입 선다변화품목으로 묶인 이후로는 두산상사에서 제조한 두산노리쯔미니랩의 국내판매를 시작, 현재는 QSS-2211과 1201, 613을 중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서에서는 지난 '92년까지 만해도 연간 2백 여대의 미니랩을 공급했는데, 최근에는 현상업소의 증가와 미니랩 공급이 한계에 달함에 따라 연 평균 1백대 내외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서에서는 '시간당 많은 양의 필름을 처리해야 하는 현상소에는 QSS-1201을 사용하도록 권하고, 확대사진이나 웨딩사진 등의 전문현상소에는 QSS-613을 그리고 미니랩이나 현상작업일을 잘 모르는 초보자들에게는 컬러모니터와 스캐너가 장착된 QSS-2211을 권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주로 QSS-2211을 찾고있다'고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HI-Q 780의 주요 사양

구 분	내 용
15분 완성의 최고속형	필름현상/12분30초, 인화현상/2분 30초
0.88m의 초소형	좁은 공간에서도 사진관 겸업 가능, 장소에 따라 일체형 또는 분리형으로 설치 가능
3.96kW의 초절전형	기계 자체만으로는 전기 신규증설의 불필요하며 사용료가 70%이상 절감
로스없는 원가 절감형	1회 컷팅 현상 방식으로 1매만의 서비스도 가능하며 175m 페파1롤당 77매의 사진을 더 만들 수 있다.
정상급 무인 프린터의 조건을 갖춘	- 고성능 자동노출 스캐너(로텐스톡렌스) - 필름 자동 이송장치(사진농도계) - 기본 바란스 자동보정 - 컴퓨터 대화방식의 디스플레이등 첨단기능 표준 장착
증명사진에서 8"×10"사이즈까지 인화 가능	- 필름 규격/135·126 : 2"×3" 120:6"×6", 6"×4.5", 6"×7" - 인화규격/3"×5", 4"×6", 5"×7", 8"×10" 증명류, 식자, 유무태, 밀착, 파노라마 사진
용 량	3"×5" - 780매/시 4"×6" - 720매/시 5"×7" - 520매/시 8"×10" - 280매/시